

人文論叢

83권 1호

2026년 2월

일반 논문

www.kci.go.kr

해외 역사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 분석

조대연**

중국·일본·아일랜드·영국의 사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 아일랜드, 영국 등 동북아시아와 서유럽의 4개국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집필 지침과 선사시대 서술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각국 교과서가 선사시대를 어떠한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새로 출간되는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비롯한 선사시대 서술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경향을 국제적 맥락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역사교과서 집필 지침을 검토하고, 교과서에 나타난 선사시대 서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북아시아에 자리잡은 중국과 일본은 모두 선사시대를 자신들의 국가와 문명 기원의 전사(前史)로 배치하고 있지만, 선사시대를 독립된 교육적 테마로 다루고 있지 않다. 반면 영국과 아일랜드는 선사시대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 탐구를 통한 자료해석, 그리고 지역사 연계 학습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지역사(Local History) 탐구 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사시대를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에서는 선사시대를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탐구의 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서유럽 역사교과서의 이러한 선사시대 서술 경향은 OECD와 유네스코가 강조하고 있는 증거 기반 탐구(evidence-based inquiry),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 이해, 비판적 사고의 함양이라는 현대 역사교육의 방향성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한국 역사교과서에서 선사시대 서술 축소가 지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향후 교과서 서술과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제어 역사교과서, 선사시대, 고고학 자료, 증거 기반 탐구, 지역사

* 이 논문은 2025년 12월, 한국고고학회 교과서위원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선사-고대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에서 저자가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1. 머리말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로 출간되는 중·고등학교 새 역사교과서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비롯한 선사시대 서술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해 관련 학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¹ 이미 2025년 출간된 중학교 교과서를 필두로 앞으로 간행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한반도 선사시대의 다루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초등학교보다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소략해지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된다.² 이러한 변화는 교육 당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사와 세계사 연계를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고대국가의 형성을 동아시아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개정 취지³와는 달리,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인류사를 폭넓게 개괄할 수 있는 선사시대가 사실상 역사 교과서의 서술 범주 밖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에서 선사시대를 축소, 내지 생략한 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삭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고고학적 탐구를 통해 성숙한 역사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사시대는 한반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초기 인류의 확산과 진화,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 수렵 채집민의 생활상, 그리고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문헌자료가 아닌 물질자료에 기반한 탐구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즉, 선사시대는 단순히 국가 형성 이전의 ‘공백기’가 아니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 사회 계층화,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그리고 권력과 국가의 출현 기반을

1 한국고고학회 외(2025),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관한 학회의 성명서」, 한국고고학회 웹사이트.

2 우장문(2025),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교과서와 선사시대 서술의 변화」, 『선사-고대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 한국고고학회 역사교과서위원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한국고고학회, pp. 7-11.

3 교육부(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 세종: 교육부.

논의하는 토대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그리고 서유럽의 아일랜드, 영국 등 4개국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역사교과서의 집필지침과 선사시대 서술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된 한국 교과서의 현황을 비교·검토하였다.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은 우리와 선사시대 일부를 공유하고 있고, 서유럽의 영국은 고고학의 발상지로서 고고학을 역사교육의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용해 온 국가이며, 아일랜드는 한국과 유사한 피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갖고 있기에 비교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필자는 이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최근 우리 역사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 축소의 성격과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2.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역사교과서에서 선사시대가 축소 및 삭제되는 영향을 국제적 맥락에서 비교·검토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그리고 서유럽의 아일랜드와 영국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네 국가는 앞서 설명한 선정 배경 외에도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적 서사 중심인 역사교육의 특징과 고고학적 탐구가 역사교육의 전통적인 테마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서유럽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에, 본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들 국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중학교 단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사시대가 정식 역사교육에 최초로 도입되는 단계라 할 수 있어서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아일랜드의 경우, 중학교 과정에서 선사시대 단원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영국은 예외적인데, 중학교(Key Stage 3)가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Key Stage 2) 단계의 역사과목에서 오직 선사시대만 1~2년

간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경우, 중학교 대신 초등학교 고학년 역사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에서는 첫째, 각국의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교육과정 문서 중 최신 역사교과서 집필 규정을 검토하여 이들 국가가 선사시대를 어떠한 교육목표와 가치를 두고 교과서 내에 배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역사교과서의 서술은 그것이 국정교과서이든, 국가의 교육과정에 따라 민간에서 집필 및 발행하는 교과서이든, 각국 교육당국이 제시한 교육과정과 집필지침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서는 각각 중국 교육부의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义务教育历史课程标准),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편』(中学校学習指導要領 社会編), 아일랜드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NCCA: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가 공동 발간한 『중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지침』(*Junior Cycle History Specification*), 영국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역사과목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History Programme of Study*) 등이다.⁴

둘째, 이들 국가 역사교과서의 본문을 분석하였다. 즉, 각 장별 구성 및 서술내용, 유적 및 유물의 도면과 삽화, 그리고 탐구 활동 등을 검토하여 선사시대가 환경 변화, 주민의 이주, 생업경제, 기술, 교역 등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내의 전반적인 고고학 자료 활용 방식, 탐구 활동의 설계방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선사시대 분야가 각 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매개로

4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1), 『义务教育历史课程标准(2011年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文部科学省(2017),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社会編』, 東京: 文部科学省; Department of Education &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2017), *Junior Cycle History Specification*, Dublin;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History Programme of Study*, London.

하는 지역사(Local History) 학습의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각국 교과서에서 선사시대가 지역사 학습과 지역 정체성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선사시대 서술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셋째, 이러한 교과서 서술 분석을 바탕으로 각국 교과서들이 담고 있는 역사관, 예를 들면 국가 기원 중심의 서사,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역사적 이해를 형성하는 ‘증거 기반 탐구’(evidence-based inquiry), 탈식민지적 접근 등의 서술 기조가 선사시대 단원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선사시대는 문헌 기록이 아닌 물질적 증거를 바탕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연구 영역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증거 기반 탐구 교육이 구현되기에 적합한 역사 학습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3. 각국 선사시대의 교과서 서술

3.1. 중국 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

3.1.1. 교육 지침과 집필 방향

중국의 역사교육은 교육부가 제정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2011년 판)』(이하 표준안이라 칭함)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수업에서 다뤄야 할 핵심적인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역사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지식과 능력, 과정과 방법, 정서·태도·가치관이 그것이다. 이는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도입된 교과서 검정제를 통해 부분적으로 교과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교육의 방향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5 중국은 1950년대부터 국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표준안에는 선사시대 서술 지침이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각 시대의 문화, 유적, 유물 등의 세세한 목록까지도 일일이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선사시대 서술의 흐름은 인류 진화의 개념과 베이징 원인(北京原人)의 생활상을 소개한 뒤, 황하 유역의 양사오(仰韶) 문화, 장강 유역의 허무두(河姆渡) 문화로 대표되는 고대 농경, 정착 생활, 그리고 의례행위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염제(炎帝), 황제(黄帝) 등의 신화를 고고학 자료와 연계하여 중국 문명 형성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그야말로 중국 특유의 논리전개를 취하고 있다.

또한 표준안에서는 교수 및 학습활동에 대해 제시하는데, 문화유적 답사, 발굴 도면이나 복원도 사용을 장려하며,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생활상 재현이나 추론활동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 선사시대를 문명 기원의 필수적인 단계로 각인시키고자 함이다.


요약하면, 2011년 표준안에는 선사시대와 관련된 교육목표와 항목이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고고학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인류진화에서 문명 형성까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2011년 표준안은 지역별 문화의 다원성을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문명 형성과정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3.1.2. 교과서 분석

2016년 발간된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중국역사』(中国历史 七年级 上册)에

명시적으로는 검정제를 도입해 교과서의 다양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다가 2017년을 전후해서 역사, 중국어, 정치 과목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 체제로 복귀하면서 개혁·개방 이후의 교과서 분권화 흐름이 사실상 종식되었으며, 2022년에는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교육 분야의 통제도 강화되는 흐름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과서는 2011년판 표준안에 근거해 집필된 것이며, 2022년 개정안에 따른 신판 교과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2022년 개정된 표준안에 대해서는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22), 『义务教育历史课程标准(2022年版)』참조.

[표 1]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국역사』(中国历史)의 서지와 선사시대 서술 정보

	<p>교과서명: 중국 역사(中国历史) 출판사: 인민교육출판사 (人民教育出版社: 국정 출판기관) 출판연도: 2016년 학년/권차: 7학년(七年级) 상책(上册) 선사시대 서술 위치: 1-3장</p>
---	--

서 선사시대는 1장 「중국 초기인류」, 2장 「초기농경생활」, 3장 「고대의 전설」의 세 장으로 구성되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표 1). 이들 선사시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인류의 기원, 농경의 개시, 공동체의 발전, 문명의 기원 순으로 계단식 발전구조로 짜여 있어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1년 표준안의 내용을 대단히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우선 초기 인류의 등장 과정을 설명할 때, 원난의 위안머우인(元谋人), 베이징 저우커우텐(周口店)의 베이징인(北京人) 등 대표 유적과 유물들이 석기, 장신구, 불의 사용 흔적 등과 함께 제시되어 학생들이 물질 자료를 통한 과거 이해의 방법을 터득하며, 자국의 중요 유적들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석기시대 서술에서는 각 지역문화를 비교·서술하고, 환경과 생업경제의 차이가 정착생활, 기술, 그리고 의례행위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농경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문명 형성의 토대라는 점이 강조되는데, 교과서의 아래 원문은 2011년 표준안에서 선사시대를 어떻게 간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구라고 판단된다.

“农作物种植, 家畜饲养的出现以及聚落, 磨制石器的发展, 是原始农业兴起和发展的重要标志. 原始农业为古代文明社会的形成奠定了重要的物质基

础.”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의 개시와 함께 취락의 형성 및 마제석기 기술의 발전은 원시 농경의 개시와 발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원시 농경은 고대 문명 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중국역사(中国历史 七年级 上册)』, p. 9, 6-8줄)

본문에는 선사시대 관련 발굴 삽화, 유적 복원도, 지도, 사진 등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의 탐구 활동을 유도하는 시도로 이어지지 않는 않으며, 고고학 자료는 교과서 설명의 근거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면, 3장 15페이지에서는 삼황오제의 신화를 고고학 자료와 연결하여 중국 문명 기원의 서사의 한 축으로 제시하고,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의 유적 분포도를 넣어 여러 지역의 문화가 서로 융합하여 중화문명의 기원을 형성했다는 문명 형성의 핵심 테마를 학생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또한 선사시대 각 단원 말미에는 학습활동(课后活动)이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1장 6페이지의 경우, 베이징인의 석기를 제시하고 그 용도를 추론하라는 문제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활동은 그 분량도 소략할 뿐만 아니라, 본문의 서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 탐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선사시대 단원과 관련해 별도의 워크북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수행평가도 제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중국의 여러 선사시대의 유적들이 다양한 사례들로 언급되고 지도에 적절하게 표시되고는 있으나, 지역사가 역사교육 체제 내에서 제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3.1.3. 소결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은 2011년 표준안의 집필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구성은 인류 진화, 농경의 개시, 정착

생활과 의례, 그리고 문명의 기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흐름으로 요약된다. 선사시대의 각종 자료가 풍부하게 제시되지만, 이는 학생의 탐구나 해석 활동을 유도하기보다는 문명과 국가 기원의 배경 설명을 위한 근거 자료의 성격을 지니며, 신화적 인물들 역시 이러한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결국 선사시대 전체가 중화문명 형성의 전사(前史)로 수렴되고 있다. 중국 교과서의 선사시대 단원은 고고학적 탐구의 장이라기보다는 문명과 고대국가의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물적 증거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2016년도에 출간된 이 역사교과서는 당시 중국 교과서의 제한적 자율성, 다원성, 그리고 실증적 접근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시진핑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국가 주도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으며,⁶ 이에 따라 조만간 전국적으로 보급될 교과서에는 중국 문명 형성과 국가 기원을 일원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중국 체제의 정당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3.2. 일본 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

3.2.1. 교육 지침과 집필 방향

일본 정부는 그간 문부과학성이 발행하는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를 통해 교과서 제작에 정부의 견해를 반영해 왔고, 여기에 더해 교과서 검

6 2022년에 개정된 『의무교육 역사과정표준』은 2011년 표준안의 역사교육의 목표를 전면 수정하였는데, 역사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로 유물사관(唯物史觀), 시공간의 관념, 사료 실증(史料實證), 역사 해석,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家國情懷)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사시대 단원은 단순한 도입부가 아니라 국가와 문명 기원의 정당화, 역사적 인과관계의 설명, 그리고 민족 공동체 기원 등의 서술을 위한 필수적인 배경으로 간주되고 있다.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22) 참조.

7 김보경(2023),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 국가 이미지 구축 연구」, 『중국사연구』 134, p. 117. 김유리(2018), 「국정제로 회귀한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역사교육』 148, pp. 76-110.

정 과정에서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역사교과서의 집필에 관여해 왔다.⁸ 문부과학성은 2017년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 사회편(역사 분야)』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중학교 역사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⁹ 이 개정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시대순 구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A는 ‘역사와의 대화’, B는 ‘근세 이전의 일본과 아시아’, C는 ‘근대 이후의 일본과 세계’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선사시대 및 고대사를 세계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편에 따라 역사과목은 보편적 인류사 속에서 일본사를 이해하는 단원으로 규정되며,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사시대는 일본 고대국가 성립의 전사(前史)로 규정된다.

선사시대 서술의 골격은 조문(繩文), 야요이(弥生), 고훈(古墳) 시대로 이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농경의 도입, 정착생활의 확대, 그리고 사회복합화라는 변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문시대의 토기, 야요이시대의 벼농사, 그리고 고훈시대의 전방후원분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구, 유물로 소개되지만, 세부적인 고고학적 해설이나 인과관계는 생략된다.¹⁰

또한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박물관이나 유적과의 연계 활동, 시각자료의 활용, 지역사 교육 등을 권장하고 있다.¹¹ 특히 “사람들

8 남상구(2016), 「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실태: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길항」, 『한일관계사연구』 54, pp. 386-394.; 엄태봉(2023), 「일본의 교과서 문제는 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교과서 문제의 구조를 중심으로」, 『국가와 정치』 29-2, pp. 138-139.

9 文部科学省(2017a),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10 일본고고학협회는 2017년의 학습지도요령에 대해, 선사시대의 중요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이를 국가 형성의 전사(前史)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국가 형성 중심의 서술에 경도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농경의 도입이나 문명의 형성에 서술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수렵채집사회의 서술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박물관과의 연계, 지역사 관련 유적의 활용, 그리고 고고학 자료의 탐구의 명시적인 언급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해 진전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日本考古学協会 2023).

11 文部科学省(2017b),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왜 변화가 일어났는가”와 같은 탐구형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역사 변동의 의미를 자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사시대 단원에서 학생들의 주제적인 탐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의 강의와 시각자료를 결합한 설명 위주의 교수법을 유지한다.

이러한 문부과학성의 교육지침은 일본 선사시대를 세계사의 흐름 속에 위치지우면서도 일본 고대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으로 요약되며, 최근 일본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선사시대 단원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3.2.2. 교과서 분석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도쿄서적이 발간한 『새로운 사회의 역사』(新しい社会 歴史)의 선사시대는 2장의 1절에서 세계의 고대 문명을 짧게 소개한 뒤, 2절 「고대까지의 일본」(古代までの日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표 2). 여기에서는 조몬, 야요이, 고훈의 세 시대가 서술되지만, 전체 분량은 불과 4페이지에 불과할 정도로 소략하여 각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만 개괄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선사시대가 서술되고 있는 2절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교과서에서는

[표 2]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새로운 사회의 역사』(新しい社会 歴史)의 서지와 선사시대 서술 정보



교과서명: 새로운 사회의 역사(新しい社会 歴史)
출판사: 도쿄서적(東京書籍)(민간 출판사)
출판연도: 2021년
적용 학년/단계: 중학교 2학년
선사시대 서술 위치: 2장 2절

중국 교과서처럼 선사시대를 일본 고대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전사’(前史)로 규정한다. 조몬 시대는 수렵·채집과 토기의 사용으로, 야요이 시대는 벼농사와 마을의 성장으로, 고훈 시대는 대규모 고분과 권력의 등장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중국 교과서처럼 단계적 서사로 정교하게 이어지지 않으며, 후술할 아일랜드와 영국의 교과서처럼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도 않는다. 선사시대는 일본 고대사의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기초 단위이라는 성격이 짙다. 이와 같은 설명적 서술 방식은 본문의 “稲作が九州北部に伝えられ、やがて東北地方などに次第に広まりました”(“벼농사가 규슈 북부에 전해져 점차 도호쿠 지방 등으로 퍼져나갔다.” 『新しい社会 歴史』, p. 32, 2~3줄)와 같은 간결한 문장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고고학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조몬 토기, 야요이 마을과 수전(水田), 고훈시대 전방후원분 등 대표 유적과 유물이 다양한 종류의 도면, 삽화, 사진들과 함께 제시된다. 그러나 중국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각자료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거나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설명을 보조하는 시각적 참고자료이다. 선사시대의 설명에 있어서 자료의 해석이나 추론을 유도하는 탐구 활동은 사실상 없으며, 설명 위주의 구성이다.

예를 들면, 이 교과서의 조몬시대 설명 부분에는 계절별 수렵·채집·어로 활동을 정리한 「생활 달력」이 도판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이 시대의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자료를 해석하거나 탐구 활동을 자극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생활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서의 성격으로 이해된다(『新しい社会 歴史』, p. 31). 또한 각 절이 끝나면 맨 뒤에 마무리 활동(まとめの活動)이 제시되지만, 이것은 이 장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요약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설명식 논리전개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과서처럼 자료 분석과 추론을 요구하는 학습활동이 제시되는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한편 일본 역사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두고 있는 세계사의 연

결 측면에서도 제한적인데, 고작해야 선사시대 단원에 앞선 1장에 「세계의 고대 문명과 종교」를 배치하는 정도이고, 학생들이 세계 문명과 일본 선사시대를 비교·분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되지는 않는 것 같다. 또한 지역사 학습이나 유적 답사 등은 해설서에서는 권장되고 있지만, 교과서 본문 속에서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학교나 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듯하다.

3.2.3. 소결

일본 역사교과서에서는 선사시대를 일본 고대사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학습 분량과 설명은 최소화하고 있으며 간결한 설명과 도판 위주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선사시대를 국가 형성의 전사(前史)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분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몬-야요이-고훈으로 이어지는 시대 구분은 명확하되, 각 시대의 성격은 그야말로 개괄적 수준에서 다루어진다. 즉, 고고학 자료는 제한된 지면 내에서나마 풍부하게 제시되지만, 그것이 인과 관계의 해설이나 탐구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세계사 속에 일본사를 자리매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의도와는 달리 그와 관련된 맥락의 제시는 단편적이어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일본 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은 중국 교과서가 제시하는 단계적 문명 서사의 축약 버전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3.3. 아일랜드 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

3.3.1. 교육 지침과 집필 방향

아일랜드의 역사교육은 2017년에 최초로 도입한 『역사교육과정 지침』(Junior Cycle History Specification)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 수업에서 다뤄야 할 핵심 주제, 탐구 역량, 학습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¹²

이 지침은 역사교육의 목표를 지식과 이해, 탐구 과정과 방법, 정서, 가치, 시민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지식의 암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료 분석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앞서 살펴본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교과서와 뚜렷이 대조된다.¹³

아일랜드 역사교과서의 선사시대 단원에는 2017년 교육과정 개편이 지향하는 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사시대와 직접 관련된 핵심영역(Strand) 1은 자료 비판, 고고학적 탐구, 유물 분석을 필수 역량으로 규정하며, 핵심영역(Strand) 2는 정착의 기원과 공동체 형성 등을 다루고 있어서 문헌이 부재한 선사시대 자료를 학습하지 않고는 그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또한 수행평가인 CBA1[“내가 사는 장소의 과거”(The Past in My Place)]에서는 지역 내 유적과 유물을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선사시대 탐구는 사실상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학습 영역인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일랜드 교과서가 이러한 선사시대와 관련 고고학 유적, 유물을 강조하여 탈식민지적 민족주의(decolonizing nationalism) 역사관을 기저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즉, 교육당국은 아일랜드의 국가적

12 Department of Education &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2017), *Junior Cycle History Specification*.

13 아일랜드에서는 1990년대 이후 교육개혁 논의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단계적인 현장 실험을 거쳐 2012년에 아일랜드 중등교육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표준안(A Framework for Junior Cycle)이 마련되었다(김진숙·지혜영 2022, p. 490).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17년에는 역사교육과정 지침이 제정되어 현대적인 역사교육의 틀이 확립되었다.

14 아일랜드 중등학교 역사교육과정은 세 가지 핵심영역(Strand)으로 이루어진다. 핵심영역(Strand) 1인 ‘역사적 탐구’(The Nature of History)는 증거 해석, 자료 비판, 유물 분석 등 탐구 역량이며, 핵심영역(Strand) 2인 ‘아일랜드의 역사’(The History of Ireland)는 정착의 기원과 사회 형성을 포함한 아일랜드사의 연속성을 다룬다. 한편 워크북에서 다루는 CBA1(Classroom-Based Assessment)은 일종의 수행평가인데, 여기에서 지역의 유적 및 유물 조사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핵심영역 1, 2의 성취기준을 달성하려면 결국 지역사 연구와 고고학적 탐구 활동을 해야 한다.

정체성을 근현대의 독립운동과 국가건설 과정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고, 중석기시대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아일랜드 선사시대의 주민 이주, 문화 발달, 기술체계 확립을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웃하는 영국의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형성된 자국의 사회문화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행평가에서 고고학적 정보를 탐구하도록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결국 아일랜드 국가의 기원을 근현대 정치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경험(local experience)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을 증시하는 아일랜드 교육철학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지침에서 선사시대 서술의 흐름은 중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로 제시되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유물들이 생활사, 기술체계, 사회 변화와 연계되어 강조된다. 농경과 금속기의 도입도 사회성격과 거주 양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일랜드 역사교육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처럼 선사시대를 민족적·국가적 정통성의 정치적 기원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자료 기반 탐구와 지역 정체성의 형성을 종합하여 고유의 아일랜드 문화와 사회 발전을 재구성하는 탈식민지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3.3.2. 교과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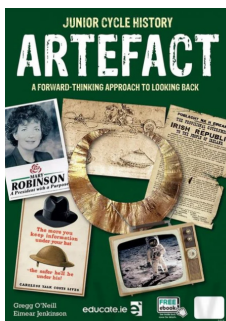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채택한 아일랜드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제목부터 『아티팩트: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ARTEFACT: A Forward-Thinking Approach to Looking Back)으로 명명되어 있으며(표 3), 이처럼 교과서 전반에 걸쳐 고고학으로 대표되는 물질자료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

15 여기에서 언급한 탈식민지적 민족주의란 근현대 국가의 정치적 독립의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주의에만 기대지 않고, 근대 이전의 장구한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형성을 국가 정체성의 근본으로 재구성하려는 역사적 인식을 의미한다. 아일랜드 역사교과서에서 엿볼 수 있는 자국 선사시대에 대한 강조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단절된 역사적 서사를 복원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탈식민지적 역사교육의 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중세시대 이전 역사자료의 대부분이 고고학 자료라서, 아일랜드의 역사교육은 기초 단계부터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한 증거의 탐구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티팩트는 2017년에 마련된 아일랜드의 역사교육과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역사교육의 목표를 증거에 기반한 탐구로 삼겠다는 확실한 선언인 셈이다. 또한 아티팩트는 아일랜드가 문헌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으로부터 탈피하여 고고학 자료에 기반해 자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탈식민주의적 접근을 암시하고 있다. 즉, 아일랜드 과거의 출발점을 영국에서 주로 생산한 문헌자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서 출토된 물질 자료로 삼겠다는 정치적 함의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닐 것 같다.

아일랜드 역사교과서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선사시대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1장 「역사의 성격: 역사가의 역할」(The Nature of History: The historian), 2장 「역사의 성격: 고고학자의 역할」(The Nature of History: The archaeologist)을 배치하여, 역사학과 고고학의 개념, 역사학자와 고고학자의 역할, 연구방법, 분석법, 그리고 자료해석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선사시대에 단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문헌자료가 없을 때 고고학 자료를 이용해 어떻게 과거를 재구성하는지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일랜드

[표 3] 아일랜드 중학교 역사교과서 『아티팩트』(ARTEFACT)의 서지와 선사시대 서술 정보



교과서명: 아티팩트(ARTEFACT)

부제: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

(A Forward-Thinking Approach to Looking Back)

출판사: educate.ie (민간 출판사)

저자: 그레그 오닐(Greg O'Neill), 엘머 제이콥슨(Elmer Jacobson)

출판연도: 2018년

적용 학년: 중학교 1-3학년

선사시대 서술 위치: 3장

랜드 역사교과서는 증거를 제시하고 탐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3장에서 아일랜드 선사시대는 중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까지 연속적으로 제시되며, 아일랜드 사회가 어떻게 자리잡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공동체를 형성해 왔는지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 단원에 배치된 “증거로 탐구해 보기”(Working with the Evidence) 활동은 아티팩트 교과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일례로, 교과서 26페이지에서 사진으로 제시되는 1차 자료들은(석제 창과 청동제 도끼의 사진을 같이 보여주고 그것들의 사용 용도와 이 유물들이 아일랜드 선사시대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생각해 보기) 학생들의 추론을 요구하고 있어서, 선사시대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분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 활동은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는 워크북을 통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고고학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의 추론 과정을 서술해야 한다. 특히 워크북에 제시된 CBA1 수행평가(‘The Past in My Place’)에서는 개별 지역의 유적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선사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는 지역사를 역사교육과정의 일부로 의무화하고 있어서 교과과정에서 지역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¹⁶ 즉 수행평가 과정에서 지역의 유적 현황 파악, 유물 실측, 촬영, 답사 보고서 작성, 지역 박물관 방문 등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3.3. 소결

아일랜드 중학교 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은 고고학 방법론의 체계적 제시, 시대별 생활사와 기술 변화의 단계적 구성, 지역사와 정체성 교육의

16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NCCA) (2018), *Junior Cycle History: Assessment Guidelines*, Dublin.

결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료 중심의 탐구 활동이 특징적이다. 아티팩트라는 교과서 제목과 1, 2장의 고고학 중심 구성은, 아일랜드가 식민지 지배의 당사자인 영국이 생산한 문헌자료와 정치사회적 근현대의 서사에서 벗어나 물질자료를 통해 자국의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탈식민지적 지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4. 영국 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

3.4.1. 교육 지침과 집필 방향

현행 영국의 역사교육은 2014년에 개정된 역사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for History)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여기에는 역사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¹⁷ 이 문서에서는 역사교육의 목적을 지식과 이해, 사료 분석 및 증거에 기반한 활동, 그리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인접한 아일랜드와 유사하게 증거에 기반한 탐구를 강조하는 영국 역사교육의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하고, 자료를 해석하여 결론을 스스로 추론하도록 구성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하지만 교과서 내 지역사의 위상에는 두 나라 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지역사 연구를 사실상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는 아일랜드와 달리 영국의 역사교육과정은 이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그 구체적인 선택 및 활용 방식은 각 지방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요컨대,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영국 교육과정에서 선사시대는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유물, 유구 같은 물질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탐구에 기반한 학습 방식은 역사적

17 나미란(2019), 「영국 초등 역사교과서 내용에 반영된 핵심개념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26-4, pp. 5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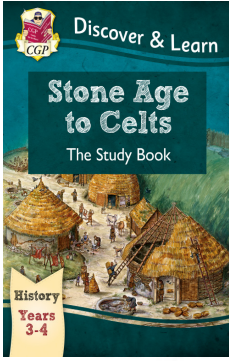
사고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역사교과서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3.4.2. 교과서 분석

영국의 초등학교 고학년용 역사교과서인 『석기시대에서 켈트족까지』(Stone Age to Celts)는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 달리 한 권 전체가 선사시대만을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다(표 4). 이는 선사시대를 단순한 도입 단원이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선사시대를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각 장은 해당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유물, 생활사 변화, 기술 혁신, 의례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 책은 풍부한 도판, 지도, 발굴 삽화, 복원도 등에 짧은 설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료가 먼저 제시되고 해석이 뒤따르는 전형적인 고고학적 읽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유럽 대륙을 한때 연결했던 도거랜드(Doggerland, 빙하기에 형성되었다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된 선사시대의 육지), 스타 카(Star Carr), 스카라 브레이(Skara Brae) 등 영국 각

[표 4] 영국 초등학교(Key Stage 2) 역사교과서 『석기시대에서 켈트족까지』(Stone Age to Celts)의 서지와 선사시대 서술 정보

	<p>교과서명: 석기시대에서 켈트족까지(Stone Age to Celts) 부제: The Study Book 출판사: CGP(Coordination Group Publications, 민간출판사) 시리즈: CGP KS2 History Series 출판연도: 2014년 적용 학년/단계: 초등학교 4-6학년(Key Stage 2) 선사시대 서술 범위: 책 전체</p>
---	--

지의 대표적 유적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환경 적응, 기술의 발전, 정착생활의 개시 등을 손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상 모든 페이지마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열린 질문들을 정교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본문 14페이지의 「중석기시대 생활」에서는 “이 시대의 영국은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가?”(“How is this different to how Britain is today?”), “(영국의 대표적인 중석기시대 인골인) 체더맨은 오늘날의 사람들과 유사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가?”(“Do you think Cheddar Man looks like people look today?”), “이러한 동굴 벽화들은 왜 그려졌다고 생각하는가?”(“Why do you think these cave paintings were drawn?”)와 같은 열린 질문들을 제시하여, 학생이 암기가 아니라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추론하고 설명하는 탐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꾸며져 있다. 또한 이 교과서에는 함께 출간된 워크북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본문에서 제시된 유적, 유물, 도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질문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교과서 본문에 배치된 열린 질문들을 보다 심화된 탐구 활동으로 이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 교과서 내내 선사시대는 문명 출현의 서사 혹은 민족적 기원의 배경으로 간주되지 않고, 탐구 기반 학습의 주된 소재와 탐구 목적 그 자체이다. 이와 더불어 영국 교과서는 발굴 현장 사례들을 연이어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고고학 현장에 참여하듯이” 과거를 해석하도록 하는 몰입형 학습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 영국 교과서 선사시대에서 지역사는 교과서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중시되지는 않으며, 아일랜드의 경우보다 서술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지역사 서술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되는데, 이는 지역 간 교육 자원 및 교과과정 운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⁸

— www.kci.go.kr
18 조대연(2024), 「영국 역사교과서의 고고학 자료 서술 특징과 시사점: <주요단계 2>의 교

3.4.3. 소결

영국의 초등학교 고학년용 선사시대 서술은 국가적 정체성 형성의 배경으로 활용하는 중국, 일본과 구별되고,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아일랜드와 달리, 고고학 자료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탐구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유적, 유물 사진이 본문보다 부각되며, 질문을 통해 학생이 자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석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요컨대, 영국의 선사시대는 역사적 상상력과 고고학적 해석 능력을 훈련시키는 탐구 중심 모델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4. 고찰

4.1. 동북아시아와 서유럽 교과서의 집필 지침과 선사시대 서술 비교

동북아시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역사교과서의 집필지침과 선사시대 서술은 각국 교육당국이 역사교육을 어떠한 목적으로 실행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표 5). 동북아시아에 자리잡은 중국과 일본은 모두 선사시대를 자신들의 국가와 문명 기원의 전사(前史)로 배치하고 있지만 선사시대를 독립된 교육적 테마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경우, 최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교과서 서술 체제가 강화되는 국면에 있으며, 신석기시대의 다원적인 지역문화가 결국은 중국 문명의 서사로 통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서술 경향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서, 조몬-야요이-고훈 시대의 연속적 배치를 통해 고대국가 성립의 기원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단선적으로, 그리고 더욱 요약, 서술하고 있다. 또한 중국

[표 5] 국가별 역사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 방식 비교

	선사시대 서술	교과서 구성	워크북 및 수행평가	주요 특징
중국	문명 기원의 단계적 서사	설명 중심 서술·도면과 도판	별도 워크북이나 수행평가 없음	국가 기원 및 문명의 연속성 강조
일본	문명 기원의 압축적 서사	압축적 설명·도면과 도판	자습서 존재 (개념 정리용)	국가 형성 배경의 간결한 제시
아일랜드	지역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강조	자료 분석과 수행평가 연계	워크북 필수적 활용 (지역사 조사)	증거 기반 탐구 및 지역 기반 탐구 활동
영국	증거 기반 탐구 역사교육 강조	유적, 유물의 추론과 해석	워크북 상시 활용	탐구 과정 자체를 학습 목표로 설정

과 일본 모두 탐구 활동과 지역사 교육은 미미하며, 일본처럼 지역사 분야가 학습지도요령에 언급되더라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영국과 아일랜드는 선사시대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 탐구를 통한 자료해석, 그리고 지역사 연계 학습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워크북과 수행평가가 교과 구성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선사시대를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탐구의 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반해, 아일랜드는 지역사를 공식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고 선사시대를 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서유럽 국가들은 학생들의 탐구역량 강화와 정체성 함양에 초점을 두고 선사시대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권역 간의 차이는 교과서에서 고고학 자료의 활용 방식 차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시대별 문화 분포도, 대표 유적, 유물들은 문명과 국가 기원 설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일본도 이와 유사하여 조몬 토기, 야요이 농경, 금속기 도입 등은 고대국가 형성의 전사로 활용된다. 반면, 영국은 유적, 유물들의 이해와 해석 과정 자체가 주된 학습활동으로 간주되며, 각 페이지마다 주도면밀하게 구성된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 역시 이

러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수행평가에서는 지역별 유적 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고학 자료의 탐구를 지역 정체성 형성의 주된 수단으로 삼고 있다.

4.2. 선사시대 서술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기준

최근 역사교육과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학습의 목표와 국제적 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별 선사시대 서술의 동향을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과 관련된 국제적 담론 가운데, 국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이하 OECD)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이하 유네스코)는 국가별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집필 및 서술에 가장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온 국제기구들로 평가된다. 물론 이들 기구들은 국가별로 특정 시대를 강조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교육당국이 교육 과정과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각국의 교육당국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제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각국 교육당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OECD는 최근 교육과정 논의와 관련해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인지 및 메타인지 능력, 그리고 절차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19 그룹에도 OECD와 유네스코가 각국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해 왔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평가된다.

다.²⁰ 이러한 관점은 역사교육에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증거 기반 탐구와 직결된다. 또한 이러한 OECD의 제안은 학습자가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교과서의 서술과 학습 활동 구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²¹

OECD는 또한 미래 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자연환경의 복잡성과 취약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다양한 맥락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²² 이를 통해 OECD는 학습자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적 맥락을 넘나들며 문제를 분석하고, 상호 연관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력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 역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학습자가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²³ 이러한 관점은 선사시대의 환경 적응, 협업, 생태적 지식 축적의 사례를 학습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²⁴ 특히 세계유산과 고고학 자료를 '학습의 장'으로 간주하는 유네스코의 시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유럽 역사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증거 기반 탐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지역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20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Publishing, pp. 5-6.

21 황인규(2021), 「4차 산업혁명시대 역사교육의 핵심역량과 핵심주제」, 『역사교육』 159, pp. 37-46.

22 OECD (2018), p. 6.

23 UNESCO (201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Publishing, pp. 6-7.

24 유네스코는 다음의 문서 전반에 걸쳐서, 특히 10-31페이지에 고고학 유산, 경관, 그리고 자연유산 전반을 장기간에 걸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리고 축적된 생태적 지식의 증거로 간주하여 학습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20),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Educational Resource Kit*.

있다. 즉, 영국과 아일랜드는 선사시대를 고고학 자료 해석, 지역 유적 조사 및 탐구활동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어서, 이들 국제기구가 지향하는 교육 방향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고고학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국가나 문명 기원의 서사의 배경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서 증거 기반 탐구, 지역사적 맥락, 그리고 비판적 해석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3. 한국 역사교과서의 선사시대 서술에 대한 시사점

2022년 개정된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선사시대는 고조선을 비롯한 고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간략한 배경으로만 간주되고 있다.²⁵ 달리 표현하면, 선사시대를 다루는 목적은 오로지 고대국가가 형성과 성장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인 셈이며, 이를 독립적인 탐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²⁶

지금까지 살펴본 동북아시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역사교과서 비교 결과는, 최근 한국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선사시대 서술의 축소 내지 삭제 경향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분명히 제공해 주고 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선사시대는 증거 기반 탐구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되며, 나아가 현대 역사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

25 교육부(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집필지침』, [별책 7], 세종: 교육부, pp. 93-95.

26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선사시대 서술 축소의 배경으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난이도와 분석 수준 등을 심화해 가는 계열화 논리와 중복학습을 피하려고 하는 반복 회피 등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으나[우장문(2025), pp. 9-12], 이러한 변화가 교육과정 개편 당시 어떠한 교육적 판단과 정책적 선택에 의해 정당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선사시대 서술 축소의 심각성과 그 배경이 고고학과 교육계 전반에서 아직 폭넓게 인식·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본고의 논지 전개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문제 제기 차원에서만 언급해 두도록 하겠다.

본의 역사교과서는 선사시대를 국가 및 문명 기원의 전사로 배치하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고고학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물질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국사 학습의 기회 자체는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최근 교과서 개정 추세는 이러한 현대 역사교육의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국제적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OECD와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증거 기반 탐구와 다양한 형태의 자료 활용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역사교과서에서 선사시대를 축소 내지 삭제한 최근의 조치는 현대 국제 교육의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습자가 물질자료를 통해 과거를 이해할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국사 교육의 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중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등 동북아시아와 서유럽 국가의 역사교과서 내 선사시대 서술을 비교함으로써 각국 교과서의 선사시대가 어떤 교육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분석 결과, 동아시아는 선사시대를 국가와 문명 기원의 서사에 편입시키고 있는 데 비해, 서유럽에서는 자료 해석, 증거 기반 탐구 활동, 그리고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선사시대는 문헌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기로, 고고학 자료와 같은 물질적 증거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는 역사 인식의 영역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서유럽 역사교과서의 선사시대 단원은 자료 해석과 증거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학습의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뚜렷한 국가별 차이는 국제적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을 때 국가별 역사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 검토는 최근 한국 역사교과서에서 선사시대 서술이 축소되는 경

향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나아가 선사시대가 단순히 “먼 과거”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시민교육과 정체성 형성에 직결된 중요한 교육 자원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집필과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관여하는 각 집단,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학습의 주체로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 각 교육주체는 향후 역사교과서 개정 논의에서 선사시대를 단순히 고대국가 형성의 배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료 해석과 탐구를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핵심적인 교육 자원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제적 사례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는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탐구 학습과 지역사 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특유의 잠재력을 제공해주며, 이러한 관점은 향후 한국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한국어 문헌

교육부(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집필지침』, [별책 7], 세종: 교육부
한국고고학회 외(2025),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관한 학회의 성명서」, 한국고고학회 웹사이트, 2025.11.20.
<https://www.kras.or.kr/?c=5/37&uid=202265>

㉡ 기타 동양 문헌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11), 『义务教育历史课程标准(2011年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25.11.20. http://www.moe.gov.cn/srcsite/A26/s8001/201112/t20111228_167340.html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2022), 『义务教育历史课程标准(2022年版)』,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25.11.20. http://www.moe.gov.cn/srcsite/A26/s8001/202204/t20220420_619921.html
文部科学省(2017a),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社会編』, 東京: 文部科学省,

2025.11.20.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4661.htm
 文部科学省(2017b), 『中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 解説 社会編』, 東京: 文部科学省, 2025.11.20. https://www.mext.go.jp/a_menu/shotou/new-cs/1384661.htm
 日本考古学協会(2023), 「学習指導要領の今—歴史教育と考古学—」, 日本考古学協会 웹사이트, 2025.11.20. <https://archaeology.jp/info/history-text/622>

㊤ 서양 문헌

Department for Education(2014),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London, 2025.11.20.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db9e9e5274a5eaea65f58/Master_final_national_curriculum_28_Nov.pdf
 Department of Education &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2017), *Junior Cycle History Specification*, Dublin, 2025.11.20. <https://curriculumonline.ie/getmedia/34acdfe-fcbf-47c2-a7ea-1e430df58e06/Junior-Cycle-History-Specification.pdf>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NCCA)(2018), *Junior Cycle History: Assessment Guidelines*, Dublin, 2025.11.20. https://curriculumonline.ie/getmedia/adcacb84-1886-4ea2-9b0a-36063e84cedc/JC_History-Assessment_Guidelines.pdf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aris: OECD Publishing, 2025.11.20.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8/06/the-future-of-education-and-skills_5424dd26/54ac7020-en.pdf
 UNESCO(201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Publishing, 2025.11.20.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7444>
 UNESCO World Heritage Centre(2020),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Educational Resource Kit*, 2025.11.20. <https://whc.unesco.org/en/education>

논저

김보경(2023),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 국가 이미지 구축 연구」, 『중국사연구』 134.
 김유리(2018), 「국정제로 회귀한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역사교육』 148.
 김진숙·지혜영(2022), 「아일랜드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JC)의 특징과 시사점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9.
 나미란(2019), 「영국 초등 역사교과서 내용에 반영된 핵심개념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26-4.
 남상구(2016), 「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실태: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의 길항」, 『한일관계사연구』 54.
 엄태봉(2023), 「일본의 교과서 문제는 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 교과서

- 문제의 구조를 중심으로, 『국가와 정치』 29-2.
- 우장문(2025),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교과서와 선사시대 서술의 변화, 한국고고학회 역사교과서위원회 〈선사-고대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울: 한국고고학회.
- 조대연(2024), 「영국 역사교과서의 고고학 자료 서술 특징과 시사점: 〈주요단계 2〉의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124.
- 조복현(2018),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변천과 그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 『역사문화연구』 68.
- 황인규(2021), 「4차 산업혁명시대 역사교육의 핵심역량과 핵심주제」, 『역사교육』 159.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1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8일

ABSTRACT

Prehistory in History Education

Cho, Daeyoun*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ese,
Japanese, Irish, and British History Textbook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textbook writing guidelines and the treatment of prehistory in history textbooks from fou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Western Europe (China, Japan,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examine from what perspectives prehistory is presented in each country's textbooks. This comparison is intended to situate, within an international context, the tendency for descriptions of prehistory, including the Palaeolithic and Neolithic periods to be reduced or omitted in newly published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in Korea following the 2022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the textbook writing guidelines of each country and analyzes the treatment of prehistory in their textbook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China and Japan predominantly regard the prehistoric era as a limited precursor to state formation, in contrast to Ireland and the UK, where it is utilised as a core component of history education through evidence-based inquiry activities grounded in archaeological data. Specifically, Ireland mandates performance assessments

* Professor,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regional history research projects, while the UK treats the prehistoric era as a core unit for developing evidence-based reasoning skills. This Western European trend corresponds with the recent emphasis in international educational discourse by the OECD and UNESCO,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concepts of evidence-based learning and the cultivation of critical thinking.

In this discourse, the author seeks to elucidate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reduction of prehistoric narratives within the sphere of Korean history education, with the objective of providing a foundation for future curriculum reform and recommendations for textbook narratives.

Keywords History Textbooks, Prehistoric Era, Archaeological Materials, Evidence-based Inquiry, Local History

